

태장두채 변종하 회원

우리농장이 강원지부 사무실입니다.

가장 넓은 면적을 갖고 있는 지부이기 때문에
어찌면 지부 사무실이 필요 없는지도 모른다.
20년 넘게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에 뿌리를 박고
곳곳하게 두채업을 하고 있는 변종하 회원을 찾았다.

올들어 가장 더운 날씨란다. 하지만 쾌청한 날씨여서 서울에서도 가시거리가 30km나 된다는 날이 었다.

전화로 알려준대로 찾아간 지부사무실(?). 두채업자들이 가장 바쁘게 지내는 아침시간을 보내고 여유를 즐기고 있는 시간에 찾아갔었다.

강원지부의 특징이라면 유일하게 지부사무실을 두지 않고 운영하는 곳이다. 면적이 넓고 회원수는 작기 때문에 지부 사무실을 두고 운영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변종하지부장님택은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5분이 채 안걸리는 곳이었다(택시비가 1600원). 태장 2동 바다약국 앞에서 내려 길가는 사람들에게 물어 보았다. “콩나물 공장이 어딥니까?” “저쪽으로 들어가 보세요.” 가리켜 주는 방향으로 내려 길가는 사람들에게 확인해 보는게 최상이다 싶어 계속 물어 보았더니 모르는 사람이 없이 다 가르쳐 준다. 변종하 강원지부장님은 태장 2동에서 콩나물을 재배한지 20년이 넘는다. 말이 20년이지

강산이 두번 바뀌는 세월이다. 대부분의 업자들이 물이나 주위환경때문에 농장을 옮기는 것에 비하면 오래도 하셨다. 그러니 주변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지. 조금 걸어들어 가니 눈에 익은 노란색 실명제 스티커와 콩나물 재배용 시루가 쌓여 있는 것이 보였다. 20년동안 뿌리 박고 살아온 농장과 집, 꾸밈없이 수수한 집안은 시원했다.

원주라고는 하지만 변두리에 속하고 강원도의 맑은 공기와 사방으로 둘러싼 산의 푸르름이 시야를 편하게 해 주었다.

강원지부는 춘천지회(지회장. 홍순재), 영동지회(지회장 강릉 지상철), 그리고 원주지회(지회장 박경식)로 구성되어 있다.

년 1회 총회를 갖고 지부는 지부대로 친목을 위한 모임을 자주 갖는다. 춘천지회와 원주지회에 비해서 영동(강릉)지회는 조직이 약하다. 변종하지부장님은 영동지회의 활성화를 위해 뭔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내일(6월 2일) 영동지회장 지상철씨가 농장을 새로 지어서 생산활동에 들어간다. 오시라는 연락도 있고 콩나물 실명제 전국확



업체탐방

대실시건으로 회원들에게 알려 할 일이 있어서 한 번 들를 계획이시다.

내일은 간단히 얼굴을 비추고 10여일 후에 영동 지부 전 회원의 모임을 갖게 해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지사항을 이야기 해야겠다.

변종하 지부장님은 전화를 주로 이용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관리해야 할 영역이 너무나 넓기 때문이다.

취재 도중에도 회원들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를 받는데 상당히 진지했다. 콩나물 실명제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게됨에 따라서 그부분에 대한 문의 전화가 주로 많다.

5월 26일에 원주시 태장동 원일관에서 총회를 거쳐서 지부장이 연임되었다.

중앙회에 연락을 할까 말까 했지만 초청만 해 놓고 회원들이 적게 모이면 결례가 될까봐 일부러 연락을 안했다. 다행이도 30여명의 회원들이 모여서 대단한 관심 속에 총회를 치를 수 있었다.

강원지부의 인원이 40여명이 안되는것에 비하면 6~7명만 빠지고 다 참석한 셈이된다.

총회에 대한 경비도 지부장님 몫이다. 초대 지부장을 맡을 때부터 모든 경비를 혼자 지출했다.

황성이 고향인 지부장님은 처음 콩나물과의 인연을 맺게 된 것이 후배를 통해서 였다.

재배방법을 하나하나 메모를 해서 한이름 정보를 들고 원주로 내려왔다. 처음 시작할 때의 태장동은 시골풍경 그대로의 모습이었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20년이 되었다.

그동안 아들 두녀석은 벌써 훌쩍 자라서 한놈은 대학 1년에, 둘째는 중학교 3학년이다.

모든 재배업자들의 공통된 사항이지만 가족들끼리 놀러가거나 할 수가 없다. 강릉같은 데만 가더라도 아침배달 때문에 꼭 택시를 타고서라도 온다. 서울 지부장 회의에 참석했을 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서울서 원주까지 택시비만도 7~8만원 정도 든다.

직원이라도 두고 작업을 했으면 하지만 인건비

빼고나면 남는게 없는 장사이니 만큼 손수 배달을 하는 실정이다.

자전거로 배달을 하고,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고, 지금의 차량으로 배달하기까지 어찌면 두채업의 발전사를 보는 듯하다.

가장 불편한 점은 콩나물을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이다.

아무리 무공해 콩나물을 재배해도 그렇게 보이지 않는 소비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콩나물을 수거해 가는 감독 창구도 하나로 일원화 했으면 좋으려만 한마디로 『게나 고동이나 다 수거해 간다』.

중앙회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그런 문제들이 하나 하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세계적으로 콩나물을 먹는 나라가 제한되어 있지만 일본은 재배방법에서 우리보다 앞서 있는것이 사실이다. 여유가 있으면 한번 2박 3일이라도 견학을 했으면 싶다.

그런 선진 재배 기술이나 방법을 협회에서 입수해 콩나물 재배 농가에 적극적으로 보급해 주었으면 한다. ●



